



# 아트 버스 타고 빛고를 문화역사여행

광주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아트 버스가 북구 곳곳을 달린다.

광주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지난 16일부터 광주의 의향(義鄕), 예향(藝鄕), 미향(味鄕) 등을 토대로 한 광주 북구 관광 아트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트 버스는 애초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로, 이동과 관광 두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 아트버스 형태로 구성했다. 버스는 관광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구 곳곳의 역사적, 문화적 장소에 승하차 할 수 있으며 중도 하차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버스 정원은 20명이며 탑승비는 1000원이다.

체험은 광주 북구의 의(義)를 엿볼 수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 전통적 예(藝)를 경험할 수 있는 광주 시가문학관 일대(환벽당과 호수생태원), 광주의 미(味)를 체험하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께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유스퀘어와 광주역에서 순차적으로 멈춘 뒤 오전 11시 20분께 국립5·18국립묘지에 정차한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문화해설사들의 설명을 통해 묘지에 얽힌 사연 등 광주의 5·18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또 헌화와 참배 등을 진행한 뒤 전시관을 관람한다.

약 1시간 가장 머문 뒤 오후 12시 20분께는 시가문학관으로 이동한다. 풍광이 뛰어난 명승지류 유명한 환벽당과 인근 광주호호수생태원등을 둘러본다. 이곳에서 북구예술해설사들과 함께 호수를 걸으며 호수 생태와 관련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오후 3시부터는 약 1시간 가장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진행하는 '주먹밥과 핑거푸드' 체험이

송정역 출발...5·18묘지·호수생태원·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방문  
12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 관광가이드·운영요원 상주

이여진다. 장소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를 상징하는 주먹밥과 샌드위치 등을 직접 만들며 광주 정심이 깃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해당 체험은 사전 예약 탑승자에 한해 20명 정원으로 이뤄진다.

아트 버스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신청은 광주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gitravel.or.kr/>)에서 가능하다.

아트 버스 내에는 관광가이드와 운영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안전 확인과 코로나19 방역도 철저히

진행한다. 아트 버스 시간표는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와 맛있는예술여행센터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관계자는 "북구가 관광거점지 간의 거리가 먼 탓에 접근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달리며 광주의 역사와 매력을 느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410-6647.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mailto:kdi@kwangju.co.kr)



북구 관광 아트 버스 코스 중 하나인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 유럽무대 선다

11월, 프랑스·헝가리 무용축제 초청  
12월, 대구 국제 무용제 공연

ACC 재단의 창제자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가 작품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무용제에서 잇따라 초청 받았다.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는 2022년 고양국제무용제의 국제교류안무가전에 초청받아 오는 30일 고양 아람누리 새라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지난 2020년 ACC 예술극장의 실험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공연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된 이 작품은 안무가 김경신의 인간 본성 탐구 3부작 호모(HOMO) 연속물의 종결작이다.

'호모 루피엔스'는 오는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의 르가르드 시흥 무용 축제와 헝가리 프르 프레그레시온 국제무용축제가 잇따라 초청받아 유럽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미래의 인간상인 호모 루덴스(유희의 인간)



가 현재의 인간상인 호모 사피엔스(지혜의 인류)를 지배한다고 가정해 만든 합성어 '호모 루피엔스(무덴스+사피엔스)'로 인간의 유희를 의미하는 단어를 창출했다. '호모 루피엔스'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유희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인간의 자화상을 그려

려낸 무용극이다.

2020년 쇼케이스 당시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 작품은 2021년 12월 본 공연에 앞서 같은 해 9월 대구국제무용제 및 프랑스 슝 페스티벌에 초청돼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mailto:skypark@kwangju.co.kr)

##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특별강연...30일·10월7일 허경희 대표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권진규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특별강연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달 30일과 10월 7일 권진규(1922-1973)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 '영원을 빛은, 권진규'와 연계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평전 '권진규'의 저자 (사)권진규 기념사업회 허경희 대표가 권진규 조각가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얘기한다. 또 전시장내 설치된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허 대표는 권진규 작가의 여동생 권경숙 여사의 아들로 작가가 작고하기 전 4년 간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권진규 작가의 작품

뿐 아니라 함께 살며 바라본 작가의 삶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권진규 작가는 '지원의 얼굴'과 같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한 인상적 인물상을 제작했다. 또 테라코타, 건칠로 현대적인 작업 세계를 펼쳐 1960년 대 국내 미술계의 상징적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작품 12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1950년 일본 활동기와 귀국해 작고할 때까지의 작품들을 시기별로 나눠 전시 중에 있다. 또 아카이브와 드로잉 50여점, 작가가 탐독했던 책을 통해 작품 변천과정과 특징 등을 눈여겨 볼 수 있다.



허경희

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62-613-712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mailto:kd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김희량 학예연구실장은 "권진규는 우리나라 미술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각가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이름은 작품 '지원의 얼굴'만큼 친숙하지 못하다"며 "허경희 대표의 이번 특별 강연회는 권진규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그의 삶과 더불어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62-613-712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mailto:kdi@kwangju.co.kr)

## 맑고 투명한 언어의 향연

광주 출신 한영숙 시인, 시집 '허공 층층' 펴내

"방향을 잃고 공터 땅바닥에 음표를 그린다. 음소거된 노래들이 꽃구름 피운다. 살면서 까마득히 사라질 때까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는지, 이제 마음의 길을 피웠으면 좋겠다."

맑고 투명한 언어의 향연.

광주 출신 한영숙 시인의 시는 그렇게 집약할 수 있겠다. 이번에 펴낸 시집 '허공 층층'(상상인)에서는 어둠의 빛은 스며오지 않는다.

조선의 시인이 "그녀의 시어는 빛에서 차용한 것이 많아서인지 슬픔조차 맑다"고 평한 것에서 보듯, 시인은 헛된 수사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맞춤하듯 그 자리에 깨어 맞춘다. 인위적인 께어 맞춤이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그 언어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다.

'배롱나무', '꽃구름 공터', '강물의 실루엣', '부추꽃', '살구나무' 등 모두 60여 편의 시들은 일상의 자연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적절한 감정 선을 유지한다.

"허공 층층 꽃망울이 머뭇거리다/ 쪽문을 두르리던 매화가/ 목은 얼굴들의 매듭을 푸는지/ 한두 송이씩 흔들린다/ 배수진을 친 꽃샘추위에도/ 발 끝에 걸려 있는 하



얀 겹의 시간/ 흔적은 그리움으로 남아/ 잊히지 않는 열굴들/ 머뭇거리면/ 당신을 놓치면/ 나는 내내 머뭇거림을 붙들고"

위 시 '머뭇거리'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직전, 순간의 시간을 초점화하고 있다. 매화는 어쩌면 단순한 꽃이 아닌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관념의 세상이 수도 있다. 머뭇거림은 그러나 고통스럽게나 애달피 않다. 또 다른 삶의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조선의 시인은 추천 글에서 "어떤 사실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스며들 때까지 기다린다. 윤리적 주체로서 처해있는 나를 먼저 관찰한다. 내면에 쌓인 시간과 기억의 파편들이 현실과 불화를 원치 않는 허공 층층에서 시적 진실을 목도할 수 있다"고 평한다.

한편 한영숙 시인은 문예마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열린시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mailto:skypark@kwangju.co.kr)

## 판소리 감상회



**김준영**

광주시립창극단 수시공연

10월1~2일 국립광주박물관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한국의 소리, 판소리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울려퍼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의 수시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오는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연 '판소리 감상회'는 올해 창극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수시 공연 레퍼토리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감상의 무대를 마련하고 기획됐다.

판소리는 청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서사적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 너름새로 구현한 것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한국 대표문화예술로서 인정받고 있다.

첫날인 1일 공연에는 창극단 정선심 수석단원과 김준영 상임단원의 북장단에 맞춰 삼정가 '화초타령'과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창극단 무용부의 축연 무도 화려함에 가세한다.

2일 공연에는 안숙선 명창과 이선희 명창, 그리고 김규형 명고와 최만 명고의 판소리 춘향가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판소리 감상회'는 호남지역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해 판소리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계승에 의의를 두고 있다.

광주시립창극단 김규형 예술감독은 "판소리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시대적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창극단 대표소리꾼과 국악계 프리마돈나의 무대로 판소리가 여러분의 삶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공연은 전체 관람가로 전석 무료. 광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mailto:kdi@kwangju.co.kr)



정선심